

제433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임시회)

제 3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6년4월2일(목)

장 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7938)
 -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나. 해양수산부 소관
 - 다. 산림청 소관
3. 2026년도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45)
4. 2026년도 축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46)
5. 2026년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47)
6. 2026년도 수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48)

상정된 안건

1.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2
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7938) 2
 -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나. 해양수산부 소관
 - 다. 산림청 소관
3. 2026년도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45) 2
4. 2026년도 축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46) 2
5. 2026년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47) 2
6. 2026년도 수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48) 2

(15시01분 개의)

○위원장 **여기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소위원회 위원 개선과 함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녹화중계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장관으로 임명되시고 오늘 처음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신 황종우 해양수산부장관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아서 말씀하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존경하는 여기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입니다.

위원님들의 크신 배려에 힘입어서 지난 3월 25일 장관직에 취임하고 오늘 첫 상임위원회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선 중동전쟁 장기화 등 엄중한 시기에 해양수산인들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는 데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현장과 직접 소통하며 해양수산 분야 당면 현안 해결과 미래를 위한 과제 추진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기구** 장관님 축하드립니다.

어려운 시국에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김종구 차관은 정부 관계장관 현안 간담회에 장관을 대리해서 참석하느라 위원장과 양당 간사님의 양해하에 불출석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15시03분)

○**위원장 여기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위원의 사임 등으로 공석이 발생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임미애 위원과 임호선 위원을 각각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7938)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나. 해양수산부 소관

다. 산림청 소관

3. 2026년도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45)

4. 2026년도 축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46)

5. 2026년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47)

6. 2026년도 수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48)

(15시04분)

○**위원장 여기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4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나오셔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존경하는 여기구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6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중동전쟁으로 경제 전반에 불확실성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고 정부는 위기 극복을 위해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중동전쟁으로 인한 농업계 그리고 국민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농가 경영 안정, 국산 농산물 소비기반 확충 및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 농식품 수출기업 애로 해소 등을 중심으로 8개 사업 총 265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농림축산식품부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업용 면세유 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시설원예의 농가가 사용하는 난방용 면세유의 가격 상승분 차액을 지원하는 예산 7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그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수입해 온 요소 수급 차질로 인한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에 대비해 농가에 무기질비료 구입비를 지원하는 예산 4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비료 업체의 원활한 원료 확보를 위한 비료원료 구매자금 3000억 원 규모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해상운임·환율 상승 등에 따라 국제 곡물 가격 상승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비하여 축산농가 사료 구매자금 65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넷째, 국산 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통한 농가의 판로 확대와 함께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도 완화하기 위해 농축산물 할인 지원 예산 500억 원을 증액하고 농식품 수출기업의 물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농식품 수출바우처 예산을 72억 원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체계적인 농지 관리, 농촌 소멸 등 현안 대응을 위해 필요한 소요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을 위해서 농지가 활용될 수 있도록 농지 조사와 DB 구축을 위해 58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농촌 지역의 일자리도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소멸지역에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를 위한 예산 706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중동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가의 경영 안정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어기구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종우 해양수산부장관 나오셔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존경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해양수산 발전을 위하여 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해양수산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해양수산부는 고유가 부담 완화, 민생 안정, 산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 919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고유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과 연안화물선 유류비 보조에 574억 원의 예산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에 300억 원을 추가 편성하고 섬 주민의 교통권 보장을 위해 연안여객선 국가보조항로 및 적자항로 지원에 29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나아가 이번 중동전쟁의 장기화가 수산식품 수출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수출바우처의 지원 조건 개선에 1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에 논의하는 추경예산뿐만 아니라 금년도 예산 또한 신속하게 집행함으로써 민생 회복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어기구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식 산림청장 나오셔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 박은식 존경하는 어기구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58만 산림산업인과 220만 산주의 권익 향상 그리고 산림행정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2026년도 산림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정부안으로 제출된 산림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에 따른 산림헬기용 항공유 구입 부족 예산 20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산불 진화의 핵심 자원인 산림헬기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정부가 제출한 산림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안은 면밀하게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추경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어기구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국회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 요약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증시 호황에 따라 농어촌특별세 총 1개 세입목에 대하여 5조 1223억 원을 증액하고 총 8개 세출사업에 대하여 2658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농민의 유류비 및 농자재 구매 부담 완화 등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농식품부 소관 8개 세출사업 중 2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둘째,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한시 지원 사업은 추경안에서 78억 24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시설원예농가의 경영 부담 완화에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사업계획상 일부 유종의 차액 지급 기준가격이 최근 가격 추이 대비 높게 설정된 편이어서 농가 지원 효과가 제한될 우려도 있으므로 지원 기준 및 상한액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해양수산부 소관입니다.

해양수산부 소관은 총 5개 세출사업에 대하여 919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어업인, 연안 화물선 등 고유가 취약 부문 지원과 수산물 물가 안정 및 경기침체 대응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소관 5개 세출사업 중 8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다섯째,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사업은 본예산 대비 30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추경예산 대부분이 하반기에 추석 등 특정 시기에 집행되도록 계획되어 있어 중동사태로 인한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려는 추경예산의 취지를 고려할 때 시기적으로 정책 효과가 제한될 우려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 산림청 소관입니다.

산림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개 세출사업에 대해 2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추경안에 반영된 산림헬기 도입·운영의 내역사업인 항공유 구입은 본예산 대비 20억 원이 증액된 규모로 9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항공유 단가 인상분이 유가가 급등한 최근 시기뿐만 아니라 12월분까지 일괄 반영된 만큼 향후 유가의 안정화 등 유가 변동에 따른 사업 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어기구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효율적인 추경 심사 준비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추경 심사 관련

서면질의 자료는 오늘 전체회의 중에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 시 질의한 사항과 서면으로 질의한 내용은 다음 주 월요일 예정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심사 자료에 포함될 사항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대체토론을 원하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도록 하는데, 질의하실 위원님들 손 한번 들어 보실래요?

거의 다 드신 것 같아서 질의 순서에 따라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서 서천호 위원님 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천호 위원** 농림부장관님, 이번 추경은 잠시 전 대통령 시정연설에서도 밝혔듯이 위기 극복 예산이고 경제를 준전시상황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해서 편성된 예산 맞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서천호 위원** 그러면 추경의 편성지침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농민들에게 직접 혜택이 가거나 농민의 고충을 덜어 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것도 맞지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국민들, 농민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서천호 위원** 그리고 이 예산이 통상적인 예산이 아니라, 추경이라는 것은 긴급한 재정조치입니다. 그것도 맞지요? 그렇다면 예산편성의 기준이 두 가지 원칙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하나는 뭐냐 하면 시급성이고 현장성입니다.

표를 한번 띄워 줄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이번 농림축산·해양수산부 예산을 보니까, 2658억 중에 약 한 50% 이상이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예산입니다. 어떤 예산인지 장관님 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서천호 위원** 농지이용관리 지원(농지전수조사 비용)에 588억이 들어 있어요.

농지전수조사 내용 한번 띄워 주실래요.

보면 지방정부 조사원 채용, 드론 구매, 조사원 교육비, 농관원 조사원 채용 이게 지금 준전시경제라고 그러면서 이 예산편성 항목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 총액에도 지금 20% 이상이 되잖아요. 이건 농민들을 우롱하는 겁니다.

다시 앞 항목으로 바꿔 주실래요.

1번 사업, 2번 사업 이게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사안이잖아요. 여기는 실제로 농민단체나 농민들이 720억을 요구를 했는데 10분의 1, 유가연동보조금이지요. 또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는 160억을 요구했는데 42억밖에 편성이 안 됐어요. 그런데 불필요한, 불요불급한 예산은 588억이나 편성하면서도 정작 농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또 체감하고 고통을 호소하는 예산은 10분의 1, 5분의 1밖에 편성 안 했다. 이 이유가 뭐니까? 지난 2월 국무회의 때 대통령께서 농지전수조사를 하라는 그 지시가 있어서 그런가요?

두 번째 항목을 한번 볼까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지금 확대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거 정책평가를 했습니까? 아직 안 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서천호 위원 정책평가 시스템을, 지금 현재 프로그램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용역은 아니고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연구를 계속하고 있고요.

○서천호 위원 그러면 3개월 지났잖아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2개월 지났습니다.

○서천호 위원 그러니까 3개월 차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매일매일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상황을.

○서천호 위원 정책평가라는 게, 매일매일 평가는 기존의 시스템이 완성이 됐을 경우에 매일매일 그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작년 우리 상임위 때 장관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시범사업을 2년간 하고 난 뒤에 정책평가를 해서 확대를 할지 말지 결정하겠다’고 장관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서천호 위원 그런데 중간에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추경예산이라는 이름으로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농정을 무시했거나 농림부에서 농정의 실태를 모르거나 아니면 선거용 돈 풀기거나 그 셋 중의 하나입니다. 어느 쪽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현장의 체감이 굉장히 좋고요. 효과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천호 위원 내가 답변을 들을 시간 드릴게요, 질의시간 다 됐으니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서천호 위원 조금 전에 시정연설 때 대통령께서 그랬어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지역에 지원한다. 이게 지금 현재 추경예산 편성의 기준하고 맞습니까? 시정연설의 앞과 뒤가 틀려요. 그렇잖아요. 위기 극복 예산이다, 경제를 준전시장황으로 보자 하고 추경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면서 시정연설 뒷부분에는 엉뚱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에 맞춰서 706억 원이라는 예산 편성이 됐습니다. 이 추경예산이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선거용 포퓰리즘이 아니면, 돈 풀기가 아니라면 7·8 항목은 전액 삭감을 해서 정말 농민들에게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재할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답을 좀 드려도 될까요?

○서천호 위원 예, 답변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일단은 기본소득 대상지역 10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일매일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에도 현장에 갔다 왔는데 현장의 반응은 굉장히 좋고 주민들이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효과를.

우리가 중동전쟁과 같이 경기침체 상황이 이루어질 때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지역이 아마 인구소멸 지역일 겁니다. 그래서 민생 안정 그리고 경기 활성화 이런 측면을 고려하면……

○**서천호 위원** 지원금을 주면 싫어할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다 좋아하지요.

그런데 장관님, 지금 보면 농업용 면세유 5종만 3개월 지원하잖아요. 농기계 경유는 왜 다 뺐어요? 이런 부분에 다 포함을 시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데에 예산을 전용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빼서 정말 시급한 데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왜 거기는 다 빼고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또 의혹을 사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농사용 전기요금이라든지 도축장 전기요금에 대한 부분도 한 톨도 없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면세유라든가 위원님 말씀하신 무기질비료 이 예산은 저희도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서천호 위원** 추가적으로 필요할 경우에는 먼저 편성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그쪽이에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래서 그 부분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우리 농업인들의 경영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천호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7번·8번 사업은 전액 삭감을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농업용 면세유 그다음에 농사용 전기요금, 도축장 전기요금 이 부분에 지원을 전환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어기구** 추경의 시급성·현장성 고려해서 소위에서 논의 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1분 더 드리겠습니다. 1분 안에 질의를 답변 포함해서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철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여수시갑 주철현 위원입니다.

해수부장관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이번 추경 내용과 관련해서 어선이나 화물선이나 버스·택시에는 유가연동보조금이 지급되게 편성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유독 면세유 사용하는 연안여객선만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서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2월 대비 4월 기준 면세 경유는 68%, 면세 중유는 73% 상승해서 여객선사 전체에 지금 거의 500억 가까운 추가 비용이 부담되는 상황인데 지금 한계상황에 이른 여객선사들이 이렇게 유가 부담이 가중되면 그냥 중단하거나 아니면 띄엄띄엄 운항하거나 그렇게 되거든요. 결국은 섬 주민들의 피해로 직결되는데 이렇게 차등되게 하면 안 되고 여객선사에 유가 인상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 정부안에 편성이 돼 있는 여객선 비용은 국가보조항로와 그다음에 적자항로만 돼 있는데 사실은 많은 섬 주민들이 다니는 곳이 일반항로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주철현 위원 예결소위에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24년 12월에 여수국제해양관광포럼이 처음으로 열렸어요. 국비 2억을 세워서, 시비·도비 합해서 또 여수광양항만공사까지 포함을 해서 해양레저관광 진흥을 위한 그런 해양관광포럼이 열렸는데 작년에는 본예산이 편성이 안 됐고 또 올해도 아직 편성이 안 돼서 지금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이 제정이 돼서 작년 1월부터 시행이 됐고 또 올해, 최근에는 해양레저관광협회가 공식 발족을 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주철현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적 기반이 갖춰지고 있는데 해양레저관광을 진흥시키기 위한 국제 포럼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올해는 여수에서 여수세계섬박람회가 9월부터 두 달간 열려요. 그래서 이어서 좀 해서 K-해양레저관광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활성화될 수 있게 조치를 취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국가에서 2억만 내면 나머지는 시비·도비 또 항만공사에서 하겠다는데 2억을 못 내서 이게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꼭 좀 추경에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다음은 농식품부장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주철현 위원 비료가격 폭등에 대한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해 있고 농업용 요소 원자재 소비량 35만t인데 거의 40% 가까이 폭등했더라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주철현 위원 수입물량의 40% 가까이가 중동의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불안한데, 한 달 전에 비해서 무려 60% 가까이 폭등했네요? 톤당 775달러 기록하는데, 알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해외 가격은 그렇습니다.

○주철현 위원 그런데 현재 이번 본예산에 무기질비료 가격보조가 156억 담겨 있고 추경에 198억이 반영됐지만 지금의 원자재 폭등이 추세에 비추어 보게 되면 많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습니다, 위원님.

○주철현 위원 대폭 상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습니다. 환율도 오르고 있고 원자재 가격도 오르고 있어서……

○주철현 위원 소위에서 추계를 해서 타당한 안을 다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주철현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무기질비료 지원은 그렇고,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화학비료 사용 줄이고 축산분뇨 자원화를 통한 친환경 농업기반 조성하자 이런 취지 아니

겠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주철현 위원** 그런데 22년에 해당 사업이 지자체로 이양된 이후에는 국비 보전금이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에 쓸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국비 보전 기한도 올해 말로 종료가 됐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습니다.

○**주철현 위원** 이대로 가게 되면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는 절대 이거 안거든요. 국비 지원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현재 공동퇴비제조장 운영하는 농협 상당수가 이미 적자거나 미미한 수익구조로 안 하려고 핑계만 대고 있는데 국비 지원 없어지게 되면 제가 보기에 유기질비료 생산기반이 무너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것은 국가에서 자원순환·탄소중립·환경보전 차원에서라도 계속 지원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아마 관련해서 우리 위원장님하고 문금주 의원님하고 법안도 발의해 놓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국회하고 또 관계부처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이 잘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조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태 위원** 부산 사하율의 조경태입니다.

일단 해수부장관님, 지금 호르무즈해협에 우리나라 배 몇 척이 고립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26척이 고립되어 있습니다.

○**조경태 위원** 이번 추경 때 그 지원에 대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따로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경태 위원** 이게 잘못된 거지요. 진짜로 피해 입고 있는 데는 지원이 안 되고 농어촌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수백억이 지원되고 이것은 정말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지금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게 바로 호르무즈해협 차단에 의해서 발생하는 문제 아닙니까? 맞지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조경태 위원** 그 스물여섯 척에 대한 지원 적극적으로 추경에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다만 사실은 저희가 이런 상황에 맞춰서……

○**조경태 위원** 장관님, 지금 국회에서 이것을 의결해서 통과시키려고 하면 정부가 발 빠르게 움직여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일단 저희가 하는 정책금융도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피해가 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반영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조경태 위원 그것 추경에 꼭 반영시키세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경태 위원 그리고 국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조경태 위원 그리고 지금 원양어선 지원에 대해서도 고유가에 대응할 수 있는 게 충분한가 하는 부분에도……

지금 유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그렇습니다.

○조경태 위원 원양어선 연료유의 가격이 킬로리터당 750달러에서 1750달러로 133배 급등했습니다. 맞지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그렇습니다.

○조경태 위원 지금 원양어선 어업이 위기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추경에 반영돼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이번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조경태 위원 못 했지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조경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건데.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 했습니까? 위기의 과도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 줄 방과제 역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전쟁과 관련된 가장 시급한 문제는 해결 못 하면서 농어촌기본소득 이런 데다 수백억을 갖다가 지금 이렇게 포퓰리즘적인 예산을 편성하는 게 과연 올바른 추경이라고 보십니까?

장관님, 원양어선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빨리 추경에 반영해야 되겠지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반영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조경태 위원 아니, 정부가 예산안을 짜야지 우리가 반영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저희도 추계해서 다시 또……

○조경태 위원 다시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조경태 위원 그리고 농림부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조경태 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농어촌기본소득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저희들이 중간 점검을 해 봤거든요. 해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아주 낮은 최하위 지역에 꽤 가까운 다섯 군의 재원 부담 구조를 봤어요. 보니까 40%만 국비 지원이고 나머지 60%는 지자체에서 부담하지 않습니까, 구조가?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도비와 군비를 나눠서 30%씩……

○조경태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도표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군 단위에서 국비는 706억 반영되지만 지방비는 1058억이 반영됩니다. 맞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조경태 위원 이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 하면 경북 영양군 같은 경우에 기존의 복지나 농업 예산이 삭감되면서—그게 무려 44%입니다—결국은 기본소득으로 다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이런 것은 국비를 조금 더 확대시켜서라도 수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영양 같은 경우에는 재생에너지 보조금, 원자력 보조금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다른 지역과는 달리 영양군은 상황이 좀 더 나은 편입니다, 위원님.

○조경태 위원 나옴에도 이 정도면 안 나온 데는 더 심각할 텐데, 하여튼 밀장 때 가지고 윗장으로 올리는 그런 행태가 되면 안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조경태 위원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조경태 위원 그리고 이번에 농림부 예산에 보면, 등유가 30%고 경유나 휘발유 같은 일반 면세유가 70%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조경태 위원 그런데 등유에 대한 지원은 나와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조경태 위원 보조금. 맞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조경태 위원 그런데 일반 면세유, 즉 경유나 휘발유 이것은 주로 어디에 쓰는가 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농기계……

○조경태 위원 경운기·트랙터, 농기계에 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조경태 위원 여기에 대한 지원이 지금 빠져 있는 것 혹시 아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습니다, 위원님.

○조경태 위원 이것 잘못된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조경태 위원 추가할 필요가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한정된 예산이라면, 지금은 기름값 때문에 발생하는 경제 위기이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조경태 위원 그러면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조금 자제하시고 휘발유로 인해서 발생하는, 기름값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농어민들의 고통을 저는 정부가 어루만져 주고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면세유에 대한 것들을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 증액이 필요하고요. 다만 기본소득 대상지 5곳을 확대한다고 한 것은, 중동전쟁과 같이 이런 상황에서는 경기침체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게 그런 인구감소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 경기 활성화를 하고 민생안정을 도모할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것을 빼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부족한 부분을 증액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경태 위원 그래서 선거 앞두고 혹시나 이게 현금 살포라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해야 되고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신년 연설에서 말했듯이 이게 우리 국민의 든든한 방파제 역할, 위기를 극복하는 방파제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점에서 정부가……

아까 서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8항·9항은 조금 더 재검토하시고요. 이 예산을 중동전쟁으로 인해서 발생한 위기 극복의 추경으로 다시 재편성하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반대하겠지만 국회에서는 예산심의할 때 이 부분이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종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진보당 전종덕 위원입니다.

두 장관님, 농식품부 같은 경우는 2658억 그리고 해수부는 919억 증액 추경을 편성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추경 재원을 봤더니 모두 다 농특회계나 기금에서 재원을 잡으셨어요. 농특회계나 기금으로만 편성됐고 단 한 푼도 일반회계에서는 편성을 안 하셨어요.

지금 농민들이 이렇게 기름값 오르고 이런 것이 농어민의 책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농어민도 일반 국민처럼 똑같이 국가의 재정에서 추경을 편성해서 어려움을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단 한 푼도 일반회계에서 추경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두 장관님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전종덕 위원 어차피 농특회계든 농안기금이든 수발기금이든 이 모든 예산들은 우리 농민이나 어민을 위해서 쓰여지게 되는 돈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맞습니다.

○전종덕 위원 그러면 그 돈은 우리 농어민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데 중동전쟁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예산에 그것도 26조 원을 배정하면서 단 한 푼도 농어민을 지원하는 예산이 없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관련해서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또 농특회계 재원이 부족해지면 일반회계에서 전입해 줍니다. 그래서 정부 안에서 상황을 보면서 하는 것이어서요.

○전종덕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이번에 증권거래 활성화에 따라서 농특세가 많이 들어왔다. 그런데 이것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전출한다. 그래서 농어민한테 쓸 돈이 적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저는 두 장관님이 정말 농어민들에 대한 아픔을 알고 계시는지, 그렇다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는지 정말 유감이고 문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농업인들에 대한 아픔은 당연히 잘 알고 있고요, 위원님.

정부의 예산 구조상 농특회계가 부족하면 일반회계에서 전입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상황을……

○전종덕 위원 전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때그때 상황을 보면서 하는 것이라……

○전종덕 위원 이것은 어차피 농어민들을 위해서 쓸 돈인데 미리 당겨쓰는 거와 마찬가지로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전종덕 위원 그래서 이렇게 편성하는 것은 두 장관님 책임지고, 일반회계에서 한 푼이라도 우리 농어민들 지원 예산으로…… 이 추경의 성격이 됩니까? 이 성격에 맞게 하셔야지요.

농식품부장관님,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하시기는 했지만 세부 내역을 봤더니, 농산물 할인 지원이라든지 이것 계속 국회에서 문제 제기했던 것 아닙니까?

농지 조사나 농어촌기본소득 필요합니다. 그런데 2658억 중에서 거의 68%가 이 돈으로 쓰여 있고 정작 필요한 농업 대응 예산은 864억에 불과해요. 그리고 그것도 용자 빼면 직접지원은 단 7%예요. 이것 좀 너무한 것 아닙니까? 이렇고도 우리 농민을 위한 예산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아까도 이 얘기 하셨는데 면세유 지원 너무 적지 않습니까? 더 늘려야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럼요.

○전종덕 위원 공감하신 것 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늘려야 됩니다.

○전종덕 위원 조경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농기계에 들어가는 경유나 휘발유 지원은 빠져 있어요. 그런데 2022년도에 지자체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례에 기초해서 이것 이번 추경에서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님.

○전종덕 위원 그리고 해수부장관님, 어업용 면세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전종덕 위원 아시겠지만 3월 대비 4월 면세유가 1드럼당 가격을 보니까 34만 1840원 이더라고요. 너무 심각하지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전종덕 위원 그런데 다행히도 최고가격제에 이 어업용 선박이 지정됐는데 그렇게 해도 유가보조금은 리터당 115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어민들이 부담할 금액은 1266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어찌 보면 전체 어민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에서 언 발에 오줌 누기 아닙니까, 이 정도면.

그래서 저는, 해수부도 똑같이 수산물 할인에 468억을 배정을 했어요. 아니지, 300억이지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전종덕 위원 300억을 배정했어요. 그래서 이런 예산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물론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할인할 수 있지만 어민들한테 직접 지원되는 것은 아

니지 않습니까?

이것도 진짜 어민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예요. 기름값 때문에 출항 자체를 못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민 면세유도 이것보다 훨씬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전종덕 위원 이번 추경에 꼭 반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그래서 더욱더 어민들이 생계의 위협을 느끼지 않게 조금이라도 더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무기질비료도 아마 앞으로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시겠지만 너무 턱없는 것 아닙니까, 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전종덕 위원 최소한 202억 정도는 더 추가해야 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이것도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동의하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전종덕 위원 지금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우리가 필수농자재 지원법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행이 안 되고 있지요? 지금 준비기간입니다. 그래도 좀 더 빠르게 법을 제정하고 이것이 발 빠르게 시행됐으면, 이것이 작동되면 농업인들에게 훨씬 더 도움이 됐을 텐데 안타까운데요. 시행 전이라도 농업인 지원방안 꼭 찾아 주시고 법 준비도 세심하게 꼼꼼히 챙겨 주시고요. 구체적으로 농민 지원방안을 그 법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꼭 좀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전종덕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볼게요.

지난번에 제가 농협중앙회장 직무정지 관련해서 농협법 164조 발동을 해 볼 생각 없냐라고 했을 때 장관님께서 살펴보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살펴본 결과가 혹시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직 살펴보는 중입니다, 위원님.

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지금 문제가 불거진 지, 상당 시간 소요됐고. 국민들과 농민들의 불신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상당히 깊습니다. 농협 개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살펴보시고 꼭 164조를 발동하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금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문금주 위원 문금주입니다.

오늘 대통령님께서도 시정연설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중동전쟁 영향으로 유류비가 폭등하고 수급까지 최악에 처해지는 위기 상황인데 이게 산업·소비 전반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단 말이지요. 이러한 위기 상황일수록 누가 제일 힘들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농업인들이 제일 힘들 겁니다.

○**문금주 위원** 그렇지요. 당장 영농철과 본격적인 조업 시기를 맞이하는 농어민들의 시름이 지금 깊어 갈 텐데요.

농어업 면세유는 최대 60% 수준까지 폭등했고 농축수산물 포장재의 원료가 되는 나프타는 수급차질이 예상되고 영농에 반드시 필요한 무기질비료 주요 원료인 요소 가격도 전년 대비 87% 폭등했고, 그럼으로써 무기질비료 가격을 25% 이상 끌어올릴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 몇 년간 인상된 농어업 전기료도 지금 농어가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 다 아실 것이고요.

농민들은 유가가 오르면 면세유, 난방비, 비닐 포장재, 운송비가 한꺼번에 오르는 상황이고 어민들은 어업용 면세유, 어선 연료비, 어구비, 사료비, 냉동·냉장비, 양식장 전력비 부담이 동시에 커지는 이런 종합적인 위기 상황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재빠른, 신속한 추경안 제출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다만 어느 분야에 어떻게 편성이 됐느냐 하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존경하는 위원님들 지적이 있으셨지만 아쉬움이 좀 남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면세유 지원액 자체가 필요액 대비 너무 낮고 또 농업용 면세유의 경우에 영농기에 필수적인 농기계에 들어가는 경유가 지금 면세유 지원에서 빠져 있고, 무기질비료도 마찬가지로 가격이 대폭 올랐습니다. 이에 대해 충분히 반영이 안 되어 있고 전기료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사료구매자금 650억 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이것은 용자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용자……

○**문금주 위원** 물론 용자를 위해서 증액도 좋지만 기존에 나가 있는 용자자금들 금리, 정책자금들에 대한 금리를 인하하는 것도 하나의 대책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문금주 위원** 빚이 쌓여 있는데 거기다 또 용자받아서 계속 빚으로 생활하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기존의 금리도 낮추는 정책들도 좀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은 전혀 없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사업도, 물론 소비촉진도 중요하겠지만 이 중의 절반은 대형마트랄지 농협의 하나로마트, 중소 소상공인보다는 대형마트 쪽에 지원하는 그런 내용일 것 같아서 저는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서 전액을 반영하는 것보다는 일부 조정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꼭 필요한 그런 쪽으로 증액하는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는데. 어찌 됐든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 주신 우선순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농어민들이 꼭 필요한 예산들은 오히려 제대로 좀…… 우리 농림부나 해수부에서 의지가 부족해 그것을 관철을 못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기재부가 반대했는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그 부분을 좀 더 두텁게 반영하고 농어촌기본소득이나 할인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보다는 조금 적었어도 더 낮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어찌 됐든 농림부가 노력은 했겠지만 우리들하고 같이해서 기재부 좀, 예결위 예산심의 때 제대로 해 가지고 방금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태 위원** 국민의힘 박준태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추경이 전쟁 추경 아니고 전쟁평계추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선거 앞두고 돈 뿌리는 매표 추경이다 이런 지적 받고 있는 것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들어가는 민생의 갈등을 조금이라도 해갈시킬 수 있다면, 그런 대승적인 차원에서 여야 합의로 이 추경안을 통과시키기로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농림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박준태 위원** 농지전수조사한다고 하셨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박준태 위원** 이게 정부 수립 이후에 최초로 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되던데 맞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준태 위원** 취지를 보니까 농지 투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 농지에 대해서 투기하는 것을 근절하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취지 중 하나입니다.

○**박준태 위원** 이게 비용이 많이 들던데 저는 이 조사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이 투기 대상이 되면 당연히 안 되겠지요. 국민들께서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화면 좀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보고 계신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박준태 위원** 대통령실에 정정옥 성평등가족비서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시나요? 모르는 분인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한 번 인사는 드린 적 있습니다.

○**박준태 위원** 이분 농지법 위반 논란 있는 것 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언론에서 봤습니다.

○**박준태 위원** 자료로 제가 한번…… 보세요.

지금 이천에 농지 1000평짜리가 있는데 이것을 13명이 쪼개서 매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7평을 매입하게 된 겁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자녀가 있는데 이분 자녀도 시흥에 농지 800평짜리를 17명이 쪼개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7평을 보유하게 된 겁니다. 77평짜리, 47평짜리에 농사 지을 수 있습니까?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도 제출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이 인근에 택지지구로 개발이 되고 GTX가 들어서고 이런 개발 호재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매입한 이후에. 그런데 본인은 해명을, ‘땅값 많이 안 올랐으니까 나도 사실상 사기당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 적절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저희가 이번 조사에 함께 살펴보고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불법적 요소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태 위원** 농지를 투기 대상으로 하는 여러 사례들을 장관께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전형적인 사례예요. 이 사례가 맞다면, 보도된 것이 사실이라면 문제가 있어 보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철저히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박준태 위원**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예요. 그 유명한 성남 라인이에요. 대통령께서 성남시장 하실 때 거기 산하기관 센터장 하셨고 경기도지사 할 때도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원장 하신 분입니다. 이분 대통령실 가서 핵심 정책들 하고 나중에 차관 가고 장관 가고 하실 것 같다는 그런 분입니다.

이런 분들이 보유한 농지부터 제대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철저히 확인하겠습니다.

○**박준태 위원** 우측도 보세요.

최성아, 이분 해외언론비서관이래요. 그런데 이분 배우자가 서울 사는데 거주지에서 220km나 떨어진 농지에 직접 농사를 짓겠다 이렇게 허위 신고한 겁니다. 당연히 영농 경력도 전혀 없는 비농업인이지요.

그런데 주변인들의 증언을 보면 30년 동안 다른 사람이 빌려서 경작했다는 겁니다. 그런 증언들이 나오고 있어요.

대통령실의 비서관만 해도, 지금 보도된 사례만 해도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 지금 정부에서 농림부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부처가 합동으로 조사하시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현재로서는 저희 부가 주도를 하는데 행안부도 그렇고 지방정부도 함께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함께 다 관련이 됩니다.

○**박준태 위원**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아직 안 나온 상태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대략적으로는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박준태 위원** 농업경영계획서만 허위 제출해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토지가액의 50% 이하를 벌금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현행법이 그렇습니다.

○**박준태 위원** 국민들 보시기에 이런 제도 운영하면 권력을 가진 분들부터 철저하게 조사하는 모습을 보셔야 ‘이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동의하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박준태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이게 지금 587억입니다, 배정된 예산이요. 조금 과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 저는 감액 의견 내고요. 적정 예산으로 좀 조정해서 운영하시도록 그렇게 의견 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예산 세부내역은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태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삼석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누누이 다 동일한 내용을 유사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한말씀만 덧붙이면 면세유 예산을 전년도 사용량 95만kl 수준에 상응하는 800억 이상을 확보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 위원님들 하신 말씀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정부도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서삼석 위원 같이 노력해야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서삼석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 1일 유가 급등 상황 발생 시 정부가 농어업용 면세유 지원 및 면세유 판매 주유소에 최고가격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정부도 이 법을 잘 살펴봐 주시고 여기에 상응하는 대책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서삼석 위원 산림청장님, 이번 추경에 임업용 면세유 증액 부분이 있나요?

○산림청장 박은식 산림청 임업용은 빠졌습니다.

○서삼석 위원 왜 빠졌어요?

○산림청장 박은식 저희가 미흡해서 살피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서삼석 위원 필요한 만큼 증액을 해야지요?

○산림청장 박은식 예, 그렇습니다.

○서삼석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임업용 면세유 이용 시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게 맞나요?

○산림청장 박은식 예, 지금 현재는 농업용은 카드가 되는데 임업용은 카드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삼석 위원 같은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인데 왜 그러지요?

○산림청장 박은식 산림조합이 영세하다 보니까 시스템 개발하고 구비하는 데 좀 늦었던 것 같습니다.

○서삼석 위원 신임 청장님이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네요.

○산림청장 박은식 예, 알겠습니다.

○서삼석 위원 꼭 해결하세요.

○산림청장 박은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삼석 위원 그다음에 황종우 장관님, 어업용 면세유를 납품하는 농협·수협의 경우 면세유 취급수수료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서삼석 위원 인하 효과를 확대하기 위해서 면세유 취급수수료를 면제하고 정부가 지원하면 조합과 어민 모두 부담을 줄일 수 있다라는 것이 현장의 여론인데, 해수부장관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다만 수협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하고 100억 원 규모의 현금을 어업인들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아마 효과는 비슷하게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삼석 위원 제가 한 말이 맞지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맞습니다.

○서삼석 위원 장관님도 동의했지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서삼석 위원 그러면 실천해야 되겠네요. 없는 돈은 늘려서라도 하고, 정책을 변형시켜서 할 수 있는 것은 변형을 시켜서 하고, 법의 내용이 부족하면 조세특례제한법 같은 경우를 개정해서라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도록 농림부장관이나 해수부장관, 산림청장 같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산림청장 박은식 예.

○서삼석 위원 제가 두 장관한테도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있는데 비단 이번 추경뿐만이 아니고 예산이 됐든 법이 됐든 정책이 됐든 농민들이나 어민들의 경영부담을 완화하는 데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항상 국회에서 여야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뭐 단 하나라도 뜻뜻미지근하게 하지 말고 완화보다는 현안과 사안에 대해서, 경영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완화보다 한 단계 더 높은 해소를 위한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는 것을 내가 지적한 바 있고 권유한 바 있어요.

동의하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서삼석 위원 농민들, 어민들은 그런 정부의 정책, 그 정책의 실행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거듭 강조합니다. 많지 않은 예산이지만 유가도 시달리는 농민들, 어민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은 예결위를 통해서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서삼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환 위원 농림부장관님, 해수부장관님 같이 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추경을 보면서 지금 농림부 공무원들, 해수부 공무원들 제대로 일하고 있는 건지, 장관님들은 제대로 보고 있는 건지, 도대체 일의 우선순위가……

이게 전쟁으로 인한 추경이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판단할 부분이 일부 있다손 치더라도 최소한 우선순위 부분은 제대로 가지고 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제가 주로 질의는 해수부장관님한테 하겠습니다.

해수부장관님, 지금 기름값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분야들이 빠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선박용 경유뿐만 아니고 선박용 중유도 빠져 있는 상황이고

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하여튼 몇 가지가 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승환 위원** 선박용 중유가 완전히 다 빠져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사실 21대에 의원님들이 다 도와주셔서 했습니다마는 굉장히 어렵게 면세경유에 대해서 유가연동보조금 받아 온 거예요.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주로 선박에 쓰이는 기름이 중유인데, 대형 선박에 쓰이는 게 중유인데 중유를 최고가 격제에서도 빼 버리고 지금 큰 배 운영하는 선주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다음에 원양어선도 빠져 있지요. 지금 원양에서 우리 식탁에 공급하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지금 39만t 정도……

○**조승환 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 되는 상황에 지금 원양어선이 행정적 편의에 의해서, 행정적으로 어떻게 지원하느냐 하는 하우(how)의 부분에 들어가면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원양어선이 멈추게 된다고 가정하면 사실 전후방 생태계가 다 죽습니다. 선박의 특징이 그래요.

그렇다면 물류산업 전후방 생태계에 대한 고려를 해서 제대로 우선순위를 가져가야 되는 것이지. 할인쿠폰 나눠 주는 것, 사실 농어민한테 혜택이 얼마나 가는지 검토보고서라고 왔지만, 돈을 뿌리니까 되겠지요. 하지만 제대로 된 게 아니라 유통업자들에게 넘어가고, 농어민에게 혜택이 가려면 외부요인에 의해 가지고 소비가 완전히 죽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하면서, 정책은 디테일이 중요한데 지금 각 시장별로 해 가지고 경쟁구도라든지 시장 왜곡현상이라든지 지역에서의 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한번 만들어 놓으니까……

사실 수산물 부분은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예산이 대거 들어가고 예비비 들어가고 그다음에 본예산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이 불어난 거란 말이지요.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 없이……

이것 농어민한테 직접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그리고 가난한 저소득 계층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 바우처로 바꾸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장 왜곡시키고 돈 뿌리기 하는 이런 사업, 저는 전액 감액 의견 냅니다. 저소득층이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바우처 형태로 바꾼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림부장관님, 농림부는 추경 할 게 그렇게 없어요? 추경 내용이 없어, 내용이. 면세유 쓰는 거 사십몇억 이거 넣어 놓고는 농지조사, 기본소득…… 기본소득은 시범 사업을 지금 10개 군에 하고 있잖아요.

이거 농림부에서 갖고 간 거예요? 외부에서 들어온 거예요, 농림부에서 갖고 간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수요도 높았고요. 그리고 이런 전시상황에서 가장 타격이 큰 곳이기도 하고요.

○**조승환 위원** 전시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전시상황에서 우선순위를 제대로 보고. 차라리 농업용 기름에 한다면, 농업의 유통과정에서 손실을 보는 분들한테 어떻게 혜택을 줄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전혀 하지 않고 무슨 농지조사에 돈

을 500억을 갖다가 하고 기본소득을 5개 더 한다고, 지금 온갖 말썽이 많은 것을 갖다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말썽 없습니다.

○**조승환 위원** 개인정보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입……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니요, 전혀 말썽 없습니다.

○**조승환 위원**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자세히 보고 있습니다.

○**조승환 위원** 저도 지역에서 들여다보고 있는데……

장관님, 문제가 있으니까 위원이 지적을 하면 받아들이세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정말 한번 해 봐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니요, 위원님 답을 드리는 겁니다.

○**조승환 위원** 답이 아니고,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대답을 하면 질의하는 국회의원이 병신이에요? 답변 태도 바꾸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주 위원**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장기화될 우려가 상당히 있었는데 오늘 또 미국 대통령의 기자회견으로 인해서 장기화가 현실화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긴급하게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서 전쟁 추경을 편성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고요. 또 많은 고심이 이런저런 부분에서 녹아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조금 더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농식품부장관께 질의를 하겠는데요. 농업용비닐과 관련된 대책을 질의할까 합니다.

제가 농민들한테 여쭙봤더니 농업용비닐 가격이 오른 것뿐만 아니라 물량이 없다고 그러면서 팔지를 않는다는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에 대한 대책이 이번 추경에는 편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멀칭비닐과 하우스비닐 가격이 12.5%와 22% 인상된 부분이 있고요. 4월부터 본격적인 농사철이기도 하고 하우스라든지 여러 가지 멀칭비닐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비닐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 일정 정도 반영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부 위원님들께서도 증액 요청을 한 부분들이 있는데 한번 살펴봐 주십사 하는 생각인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래서 멀칭비닐·하우스비닐 파악한 길로는 봄철까지는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멀칭비닐을 생산해야 되는 업체에서는 원료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체계적으로 지원 대상으로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 수 있는지 위원님들과 의논드려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옥주 위원**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현실적인 부분들도 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해수부장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호르무즈해협에 묶여 있는 국적선사가 26척인데 그사이에 운임 수입도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사이에 보니까 유류비도 한 220%가 올랐고요, 보험료는 1000% 이상 올랐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받아 봤더니 이 선사들이 하루에 약 143만 달러, 우리 돈으로 21억 5000만 원 정도의 손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어떤 불가항력적인 사태로 인해서 국적선사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 선사 중의 많은 부분들이 중소선사입니다. 대책도 없는 것 같고요, 또 잘못되다가는 경영 악화뿐만 아니라 도산의 위기까지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산업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추경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는데 혹시 해수부에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지금 호르무즈해협 내측에 있는 선박들, 선사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여러 가지로 지원을, 정책금융이나 이런 것 지원을 하고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더 필요한 지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송옥주 위원 나머지는 소위에서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위원 두 분 장관님, 제가 이번에 추경 관련 자료를 받아 보고 좀 농락당한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농림부장관님이나 해수부장관님이나 사실은 그 분야의 오랜 전문성을 가지고 근무해 오신 분들이시고요.

그런데 이번 추경의 목적이 전쟁으로 인한 여러 가지 유가 상승에 따른 사회 취약계층 그리고 농민 파트에서의 어려움들을 덜어 드리기 위한 추경을 긴급하게 편성한다, 이런 취지를 갖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름 가격이 높아져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농기계 면세유의 증가에 따른 피해라든지 그뿐만이 아니라 시골의 많은 난방도 이제는 기름으로 하잖아요. 어르신들 난방에 안 재우고 그래도 조금 국가에서 배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여력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해 오신 추경안의 내용들을 보면…… 장관이 몰라서 이렇게 편성해 온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시설농가에 대한 면세유 지원이라지 이런 부분들을 보고 또 무기질비료 42억 증액하신다는 이런 것 보면 장관님께서 몰라서 이렇게 편성하셨다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다 아세요. 현장에서 뭐가 필요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번기가 돌아오면서 비닐이라든지 여러 가지 농자재에 대한 필요한 사항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도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거기는 의도적으로인지 다 뺐어요.

해수부장관님, 이번에 전쟁 관련해 가지고 호르무즈해협 안에 26척의 대형 상선들이나 유조선들이 묶여 있다는 것 뻔히 잘 아시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이만희 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 왜 합니까? 배경에도 여러 가지 해운이나 물류, 전쟁으로 인한 업계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해수부장관님이 정말로 호르무즈해협 안에 갇혀 있는 우리 상선들에 대한 지원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안 하신 건지?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그렇지 않습니다.

○**이만희 위원** 아시면서 왜 이렇게 편성을 해서 이것을 편성했노라고 국회에 심의를 해 달라고 던져 주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농림부장관님도, 산림청장님도, 해수부장관님도 다 전문가들이잖아요, 현장에서. 어디에 뭐가 필요하다는 것 다 아시잖아요. 이것을 편성해 놓고 와 가지고 국회에 와서 ‘잘 챙겨 주시고 증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난하십니까? 장난하시느냐고요, 저희들하고!

해수부장관님, 이번에 해운업계로부터 얼마 정도 지원 요청을 받으셨어요? 해운업계랑 간담회 당연히 해 보셨겠지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이만희 위원** 그렇지요? ‘호르무즈해협이 막혀 가지고 지금 해운업계가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가 추경을 하신다는데 얼마를 지원해 주면 그래도 숨통이 트이겠습니까. 얼마는 버티겠습니까’, 간담회 과정에서 들은 금액이 얼마예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해운업계에서는 한 670억 정도 얘기를 주셨습니다.

○**이만희 위원** 그런데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그런데 사실 저희가 해양진흥공사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이만희 위원** 장관님! 추경을 왜 하십니까? 배경 설명에 나와 있잖아요. 해운·물류 비용 상승에 따른 수출기업의 직접 타격,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따른 관련 산업 위축 가능성이 있어서 추경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한 푼도 반영 안 해요? 670억 지원 받아 가지고, 한 푼도 반영 안 하고 와서 여기서 추경해 냈다고 하시는 겁니까?

농림부장관님, 농번기 되면 농기계 돌아가고. 경유값 전부 다 국가에서 보조해 주면 안 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해야 합니다.

○**이만희 위원** 그런데 왜 한 푼도 반영 안 했습니까? 비닐값 올라간다는 거 몰랐어요? 다 아시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국회 과정에서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이만희 위원** 장관님, 78억·42억 던져 주고 너희들이 알아서 인상해 주면 우리가 열심히 하겠다 이러지 마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만희 위원** 모르고 그러시면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기 앉아 계시는 세 분은 농업 분야, 해운·해수 분야, 산림 분야에 평생을 보내 오신 분들입니다. 뭘 이것을 가지고 추경 편성해 왔다고 여기 내놓습니까? 반성하세요!

○**위원장 어기구**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임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선 위원** 분위기가 무겁네요.

그리고 존경하는 야당 위원님들 질책이 저는 충분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장관님 이하 공직자분들 반성하셔야 돼요. 공감하고요. 국회의 심의 과정이 남아 있으니까 그나마 참 다행인 걸로 여겨야 되는 건지 하는 생각을 갖게 하네요.

결론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대로라면 농어촌기본소득 같은 경우 이번 추경에 통과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먼저 갖게 돼요. 꼭 담아야 된다면 왜 담겨야 되는지에 대한 여야 위원님들 설득이 필요하고요.

저는 당장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만 내자면 지금 이것 선거용이라고 일부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은 9·10·11·12, 4개월 예산으로 일단 줄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의사결정을 못 해요, 6월 선거 끝나기 전에는 군의회가 구성이 안 되고 어차피 군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6월 달부터 예산집행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 추경 통과가 돼도.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지방선거 끝나고 그때 막 공모 들어가서, 어차피 공모가 들어가도 군수가 있어야지 또 군의회가 있어야지 뭘 해도 하거든요. 지금 다 거기에 매달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4개월치로 줄여서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지 않으면 어렵다.

그리고 농지이용관리 지원, 농지 조사는 왜 필요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설득도 꼭 필요하다. 그 전제가 뭐냐 하면, 이걸 통과시키기 위해서 해야 될 기본 전제가 여기에 농업·농촌의 어려운 현실이 안 담겼다는 거지요. 그나마 해수부에서 마련된 것은 국회 차원에서 어느 항목으로 어떤 만큼의 증액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지금 개괄적으로 담아 왔는데 당장 내일모레 글피, 월요일이면 저희들이 이것 들여다봐야 되는데 주말에 공직자분들 밤을 새서라도 이것 현실을 담아 오셔야 돼요. 어렵고 힘든 현실을 담아 오셔야 된다.

그리고 존경하는 조승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가요. 농축산물 할인 지원, 이것 해수부도 마찬가지인데 코로나 때 어설픔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때는 사람들이 방구석에서 꿈쩍을 못 했지 않습니까. 2명 이상, 3명 이상 못 만나게 하니까. 그래 가지고 도저히 먹고살 수가 없어서 이것 사업 만들어 놔는데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게 맞냐.

아마 아실 겁니다. 이것 대기업에 얼마 들어가요? 지금 본예산에 담긴 게 대형 유통경로 477억 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 설명 자료에. 그런데 추경에 한 이백이삼십억 또 들어가겠네요. 이러면 안 돼요.

만약에 이것을 일부라도 꼭 담아야 된다고 하면 조정해 줘야 됩니다. 조정해서 전통시장에 한 80%를, 이번 추경에는 전통시장 살려야겠다라고 하는 특단의 의지 같은 식으로 담지 않으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대형마트가 이번 중동전쟁으로 휘청거리나요? 하나 예를 든 거지요. 추경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예산소위에서 다루겠습니다만 야당 위원님들의 저 호통과 질책이 야당이니까 그러려니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오산입니다. 이것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서 우리 농업·농촌 또 어민분들 정말 이번 추경을 통해서 ‘역시 다르다. 장관님들 새로 부임하시고 또 유임해서 하는 것 보니까 이것 완전 다르다. 좀 나아졌다. 달라졌다’라는 평가가 현장에서 나와야 돼요. 저는 두 분 장관님 이하 공직자분들 역량 충분히 있다고 믿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오늘 야당 위원님들 호통치는 그 모습 속에서 오히려 제가 마음이 아프네요.

잘 좀 해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임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어기구 임호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선교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교 위원 농식품부장관님, 농촌경제연구원 출신 장관 맞습니까? 지금 전쟁 핑계 추경이 농식품부만 얼마입니까? 지금 2658억 중 반이 전쟁 핑계 추경이에요. 공감하십니까?

농어촌기본소득 사업하고 농지이용관리 지원 예산만 반이 됩니다. 맞아요, 틀려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교 위원 장관님, 버젓이 이런 핑계 추경을 올려놓고 심의받는 게 맞습니까? 아니, 농어촌기본소득 7개 시군에서 3개 시군 올려서 해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존경하는 임호선 위원 말씀한 바와 같이 지자체장들……

거기 지방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60% 들어가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김선교 위원 이것 돈 내려보내도 할 수 있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저희는 지난 경험에 비추어 보면 할 수 있는 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선교 위원 대통령 지시사항이라 한 것 아니에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현장에서의 수요가 너무 높았습니다, 위원님.

○김선교 위원 뭐가 현장에서 높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현장의 수요……

○김선교 위원 지금 다른 돈 끌어다 농업기본소득 돈을 주고 있는데요. SOC 사업이 지금 다 중단돼 있어요. 지금 내려보내도 쓸 수 있습니까, 이것 5개 사업 늘려서? 그러면 대통령께 이런 사항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

○김선교 위원 자, 농지이용관리 사업도 그래요. 후보 계획 있습니까, 이것?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김선교 위원 후보 계획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후보라는 말씀이……

○김선교 위원 그러니까 사업 계획이 있냐 얘기에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있습니다, 위원님.

○김선교 위원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김선교 위원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조사 지시해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닙니다. 작년 저희 업무보고 때도 저희들이 농지 개혁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 밑바탕에는 농지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되는 게 전제입니다.

○**김선교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을 전쟁 핑계 추정으로 왜 넣습니까? 이게 전쟁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농업인들한테 농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요, 위원님.

○**김선교 위원** 아니, 전쟁 핑계 추정하고 뭐가 관련이 있냐고요? 그걸 답변을 해 보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러니까 당장의 필요도 중요하지만 우리 전반적인 구조를 바꾸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교 위원**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이 얘기했어요. 유류비 이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몇백억이, 몇천억이 들어가야 되는 이 돈을 몇십억 해 놓고 이것을 추정이라고 이 자리에 갖다 댔습니까?

자, 축산업 얘기만 해 볼게요. 사료값, 전기요금, 가축 질병…… 장관님이 위기상황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넣어 줘야지요.

정부안대로, 수정해서 올릴 수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추가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선교 위원** 산림청장님, 산림청장님은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나고 대형화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왜 여기에 산림헬기에 대해서 유류비 같은 것 하나도 안 올렸습니까?

○**산림청장 박은식** 산림헬기 유류비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정부안에.

○**김선교 위원** 얼마 들어가 있어요?

○**산림청장 박은식** 20억 들어가 있습니다.

○**김선교 위원** 20억 갖고 그게 됩니까?

○**산림청장 박은식** 유류비가 원래 반영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 이상……

○**김선교 위원** 항공유 단가가 리터당 얼마예요?

○**산림청장 박은식** 지금 예상하기로는 1600원대로 올라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선교 위원** 그러니까 1048원에서 1600원대로 올라갈 것 같지요?

○**산림청장 박은식** 예.

○**김선교 위원** 그런데 20억 갖고 됩니까, 약 58%가 급등했는데?

○**산림청장 박은식** 지금 봄철 산불기간이 진행이 많이 됐기 때문에 잔여기간 동안을 산출한 그런 금액입니다.

○**김선교 위원** 청장님, 그걸 답변이라고 하세요? 전문성이 있는 분들 아닙니까, 몇십 년 동안 거기 그 자리에 있었고.

이번 예산에 충분치 않은 것을 좀 해서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산림청장 박은식**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선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준병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준병 위원** 늘 예산 할 때는 쓸 데는 많고 돈은 적고 이걸 어떻게 잘 배분하느냐가 관건이지요. 그래서 사업에 대해서는 선후, 완급, 경중을 가려서 편성을 해야 됩니다.

기획예산처가 예산을 하면 지금 야당 위원님들 지적하는 내용을 다 수용할 수 있을 텐데 농식품부나 해수부나 산림청이나 공히 요구한 내용이 있지만 국가 전체 재원 때문에

반영 안 된 부분이 꽤 많이 있어서 아마 부족한 부분도 있고 누락된 부분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노력은 했겠지만 반영이 안 된 만큼 국회의 심의 단계에서 이 부분이, 지적된 내용들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농업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과 관련된 영역 또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 사업 또 시설원예농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 또 전기 농기계 확충과 관련된 영역,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차액 지원 또 해수부의 국가보조항로 결손보상금, 특히 연안여객선 한시적인 준공영제 도입과 관련된 영역 또 어업지도선에 유류비 지원, 수산식품 바우처를 통한 취약계층 지원하는 문제, 양식어업인 전기료 한시 지원, 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 지원, 연안화물선 유류비 보조 이런 내용들이 국회의 심의 단계에서 제대로 반영돼서 유류비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농식품부나 해수부나 산림청 공히 좀 더 치밀하게 자료 정리하고 또 관련되고 있는 논리들을 잘 다듬어서 부족한 재원이기는 하지만 다른 사업보다, 다른 부처보다 우리가 앞서서 조치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급하고 이게 중요하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강조를 좀 해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전체적인 사업비 내용 보면 중동전쟁과 연계가 좀 덜하다고 야당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업들에 대해서도 논리를 잘 다듬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농지전수조사는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도 기여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약 5000여 명의 추가 인력 확충을 할 수 있는 예산인 만큼 그게 중동 전쟁하고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윤준병 위원** 그래서 그런 내용들 논리를 잘 개발해서 위원님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윤준병 위원** 특히 아까 존경하는 서삼석 위원님 지적도 있었는데 부처에서,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관련돼서 농협도 참여하고 또 수협도 참여하고 이렇게 해서 실제 현장의 조합원들, 농업인·어업인들의 어려움을 함께 덜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면세유가 문제가 되는데 면세유와 관련돼서 취급수수료가 농협은 2%가 있고, 아까 지적했습니다. 산림조합은 없어요, 수협도 지금 있고. 이 부분도 협의해서 한시적으로 농협이 그 부분을 면제해 주든지 아예 개선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고요.

또 산림조합에서 포스가 없어 가지고 그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도 제가 농협에 요청해 가지고 이거 함께 하겠다고 제가 공문도 받아 왔는데 아직 현장에서 그게 시행이 안 되고 있나 봐요.

○**산림청장 박은식** 위원님 말씀하신 그 방향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준병 위원** 그러니까 현장에서 목소리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완하도록

이렇게 요청을 해서 농협에서 전향적으로 보완하고 이걸 함께 처리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지금 지적된 내용 보면 아직까지는 시행이 안 된 것 같아요.

○산림청장 박은식 예. 그렇습니다.

○윤준병 위원 산림청하고 우리 농식품부가 그 부분은 점검을 하셔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구요.

하나 첨언하면, 예산이라고 하는 과정이 쓸 데는 많고 재원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요구되는 내용들을 다 충족을 못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만 받고 있어서는 안 되고 농식품부나 우리 위원회 차원의 부처들의 경우에는 다 약자들을 다루고 있는 부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 있는 내용을 삭감해서 증액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주어져 있는 내용을 놔두고 증액을 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다 이런 점을 잘 설득하고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감사님, 잘 정리까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전종덕 위원 짧게 한마디만……

○위원장 어기구 전종덕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덕 위원 해수부장관님, 어업인 면세경유 있잖아요. 유가연동보조금에 468억 배정 하셨는데, 아까 시간 없어서 짧게 넘어갔는데요. 유가연동보조금 리터당 115원 지급을 해도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민들이 부담할 것이 리터당 1266원을 부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면세경유는 3월 기준 880원에 비해서 엄청난 금액을 어민들이 다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부담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가 증액을 해서 별도로 좀 더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그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을 하고 있는 거지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지금 1266원 정도라면 3월 달 면세유 880원보다 너무 높기 때문에 최소한 100원 이상은 좀 더 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심의 과정에서, 처음에 우리가 468억 원 정도를 일단 정부안에 반영했는데 400억 정도 이상 더 반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종덕 위원 어업인 부담금 차액분을 보니까 리터당 368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것을 2만 8000명 기준으로 하면 약 650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구체적으로 계산할 건데, 최소한 이 정도는 좀 지원을 해야 그 인상분만큼 지원이 될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올라갈 수 있도록, 더 증액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전종덕 위원 농림부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전종덕 위원 여러 가지 지원 대책도 있습니다마는 추경은 추경인데, 알고 계시겠지만 복합비료 재고가 5월이면 끝나고 또 요소 원자재도 6월이면 끝나는 것으로 그리고 아까 질의가 있었지만 비닐 생산도 거의 중단 위기에 있잖아요. 그러면 공급 대란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계속 강조하고 싶은 것은 농민들이나 어민들한테 직접 지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이 어려움을, 부담을 좀 더 완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생산비 폭등 대란도 대란이지만 공급 대책에 대해서 농식품부가 계획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5월, 6월이면 한창 농번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대란이 나면 이게 어떻게 될지 지금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전쟁이 끝날 것 같지는 않고, 지금 분위기로는.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을 혹시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요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새로운 공급망 확보 차원에서 국가 전체적으로 외교력을 발휘해서, 원래는 중국에서 수입을 하다가 중동으로 돌렸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중국하고도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베트남이 원료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베트남 등으로부터 공급망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공급망 확보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거와 별개로 저희는 구조적으로 이 요소비료, 그러니까 무기질비료를 좀 줄이는 노력도 차제에 해야 되겠다,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적정량의 비료 시비를 하고 그다음에 축분을 활용해서 유기질비료로 대체하는 노력 이런 것도 동시에 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님.

○**전종덕 위원** 농번기 앞두고 농민들이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식품부의 이런 계획들을 농민들에게 알리고 걱정을 덜어 낼 수 있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어기구**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관님들 또 청장님 등등해서 추경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고요.

오늘 여야 위원님들,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잘 들으셨지요? 이번 추경이 전쟁 추경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 잘 반영하고 현장에서 꼭 필요한 이런 예산들 소위에서 여야 위원님과 머리를 맞대고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위원장 어기구**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또 현장의 목소리를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4일 날 한농연이 저와 함께 전쟁 추경에 꼭 집어넣어야 할 예산 관련해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아십니까, 농림부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장 어기구** 여기에 요구한 사업이 총 6개 있는데요. 지금 4개는 반영이 됐고 2개가 빠졌습니다. 그 2개가 뭐냐 하면 농사용 전기료 지원과 도축장 전기요금 지원입니다. 2022년부터 농사용 전기료가 대폭 인상된 거 잘 아시잖아요, 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장 어기구** 도축장 전기료도 24년에 할인 특례가 종료돼서 작년부터 완전히 급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꼭 이번 추경에 포함시켜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소위에서 좀 살펴봐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또 나프타 쇼크가 지금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여기 관련한, 농업용비닐 가

격 등등 이런 게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정부 추경안에 나프타 도입 예산이 4695억 원이 편성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여기에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해서 농업용비닐 또 플라스틱 부자재·포장재 이런 것들이, 이런 예산들을 별도로 확보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공급망 차원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어기구** 예산이 편성돼 있으니까 이 부분을 농업 쪽으로 많이 끌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호르무즈 사태 때문에 아까 야당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이거는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저도 지난 장관 청문회 때 ‘중소선사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관님께서 특별히 이번 추경에 이분들을 위한 예산을 꼭 배려해 달라’ 이렇게 해수부장관님한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이게 다 빠진 거예요. 이게 보니까 이분들이 지금 그쪽에 선박들 말이 묶이면서 운임 수입은 없지요. 그렇지요?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여기서 연료비, 보험료, 선원비, 계류비 이렇게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중소선사들의 경우 해운협회에 물어보니까 하루에 한 5.8억, 한 달이면 한 114억의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 부담은 선사들이 잘못해서 부담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비용을.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이번 추경이 전쟁 추경이니까 이 부분을 꼭 반영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제안을 드립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좀 논의가 있었나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저희가 정책금융을 가지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하려고 일단 선사들보고 신청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피해 신청을 한 선사가 네 군데였고요.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한 데가 두 군데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선사들이 여러 가지 피해액을 얘기를 하는데 선주하고 화주의 계약상 여러 가지 요건 때문에 실제로 피해액들이 대단히 상이하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선사별로 맞게 맞춤형으로 어떤 지원을 할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호르무즈에 묶인 배가 26척인데 여기 선사가 17개라는 거예요. 이 중에 배 한두 척 가지고 있는 중소선사가 7개사라는 겁니다. 7개사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7개사를 잘 좀 봐 주시고. 일단 이 사람들의 비용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쟁 추경에서 도와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힘내십시오, 우리 장관님들. 아셨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장님.

○**위원장 어기구** 위축되지 마시고 파이팅 하시고요.

그러면 간사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6항까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4건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옥주 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송옥주 위원 예.

○위원장 어기구 질의 도중에 본 위원장을 포함하여 우리 위원회 전 위원님들로부터 서면질의가 제출되었습니다. 해당 기관장께서는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출석해 주신 기관장 및 관계 직원 여러분, 위원회·사무처 직원을 비롯한 의원실 보좌진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4월 6일 예결소위를 마친 후 당일 오후에 개최하여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산회)

○출석 위원(18인)

김선교 문금주 문대립 박준태 서삼석 서천호 송옥주 어기구 윤준병 이만희
이원택 임미애 임호선 전종덕 정희용 조경태 조승환 주철현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전문위원 김성완
전문위원 이현중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기획조정실장 박순연
농산업혁신정책실장 김정욱
식량정책실장 박정훈
정책기획관 홍인기
농업정책관 윤원습
농산업혁신정책관 이시혜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 강동윤
식품산업정책관 정경석
축산정책관 이재식
해양수산부
장관 황종우

차관 김성범
 기획조정실장 김재철
 해양정책실장 서정호
 수산정책실장 최현호
 해운물류국장 김혜정
 해사안전국장 이수호
 항만국장 공두표
 정책기획관 이상호
 해양정책관 유은원
 해양환경정책관 황준성
 국제협력정책관 송종준
 수산정책관 양영진
 어업자원정책관 김인경
 어촌양식정책관 박승준
 북극향로추진본부
 본부장 남재현
 산림청
 청장 박은식
 기획조정관 이종수
 산림산업정책국장 이상익
 산림항공본부
 본부장 김만주

【보고사항】

○의안 회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9. 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30)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9.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31)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9.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33)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9.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34)

이상 4건 3월 10일 회부됨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0.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42)

3월 11일 회부됨

헴프산업 육성 및 헴프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2026. 2. 25.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27)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1.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58)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1.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60)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1. 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65)

해사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1. 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66)

이상 5건 3월 12일 회부됨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2.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06)

3월 13일 회부됨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6.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86)

3월 17일 회부됨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7. 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15)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7. 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19)

한국수산진흥공사법안

(2026. 3. 17. 주진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31)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7. 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39)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7. 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45)

이상 5건 3월 18일 회부됨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6. 3. 18.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60)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8. 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61)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8. 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75)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8. 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56)

이상 4건 3월 19일 회부됨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9. 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08)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9. 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22)

이상 2건 3월 20일 회부됨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20. 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37)

3월 23일 회부됨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25. 조정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26)

농어업회의소법안

(2026. 3. 25.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28)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25. 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32)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25. 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45)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25.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54)

이상 5건 3월 26일 회부됨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26. 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62)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26. 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63)

이상 2건 3월 27일 회부됨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 3. 31.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7938)

2026년도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6. 3. 31.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7945)

2026년도 축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6. 3. 31.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7946)

2026년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6. 3. 31.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7947)

2026년도 수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6. 3. 31.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7948)

이상 5건 3월 31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9. 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24)

3월 10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7. 주진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38)

3월 18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2026. 3. 18. 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83)

3월 19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2026. 3. 24. 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18)

3월 25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소위원회 직접 회부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8. 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61)

3월 19일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됨

○보고서 제출

제4차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및 2026년 수산자원관리 시행계획 제출

(2026. 2. 26. 해양수산부장관 제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운영 실적 보고

(2026. 2. 26.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장 제출)

2025년 연간 감사보고서 제출

(2026. 2. 26.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제출)

2025년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감사종합보고서 제출

(2026. 2. 26.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제출)

2025회계연도 녹색자금 결산서 보고

(2026. 2. 27. 산림청장 제출)

202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제출

(2026. 2. 27. 해양환경공단이사장 제출)

2026년도 선박관리산업육성 시행계획 제출

(2026. 2. 27. 해양수산부장관 제출)

제2차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리기본계획(2024~2028) 2026년도 시행계획 수립

(2026. 3. 3. 해양수산부장관 제출)

제2차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기본계획(2026~2030) 및 2026년 시행계획

(2026. 3. 4. 해양수산부장관 제출)

2026년도 수산물 유통발전 시행계획 제출

(2026. 3. 5. 해양수산부장관 제출)

2026년도 해양심층수 시행계획 수립·제출

(2026. 3. 10. 해양수산부장관 제출)

2026년도 1분기 이·전용 내역 제출

(2026. 3. 18. 농촌진흥청장 제출)

2026년도 수목원진흥 시행계획 제출

(2026. 3. 20. 산림청장 제출)

제3차 정원진흥 기본계획(2026~2030) 제출

(2026. 3. 26. 산림청장 제출)

제3차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2026~2035) 제출

(2026. 3. 31. 산림청장 제출)